

주님 공현 대축일

제1독서 : 이사 60, 1-6  
제2독서 : 에페 3, 2-3, 5-6  
복 음 : 마태 2, 1-12

# 숲 정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 2, 2)

## 강론

### 희망이라는 선물

고봉호 신부/해성중고교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오늘, 단지 하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인간의 소중한 삶의 체험은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갖게되는 기대와 희망은 누구에게나 값지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주가 지나고 급기야 1월의 달력을 넘길 때 쯤이면 우리는 벌써 한숨마저 짓게 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 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별 수 있을라고, 작심 삼일이라 했던가? 역시 옛말은 틀린게 하나도 없단니까...”

모두가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부풀어 있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의 무게에 짓눌려 희망이 질게 그늘드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희망이 없는 개인과 나라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단테가 지옥입구에는 이런 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란 곳은 희망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일 것이다.

에집트 종살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히브리인들은 희망을 잃고 그것이 좌절인 지도 모른채 욕망과 타협해 버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새해의 첫추를 맞는 주님 공현 축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좌절, 절망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분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이다.

## 소리

### 새해를 맞으며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보고 있으면 기운이 난다. 그 그림에는 오랜 세월 추위를 이긴 소나무와 잣나무가 곳곳이 서 있기 때문이다.

작년 대통령 선거일 이후 우리 국민은 인동초라 불린 대통령 당선자에게 많은 요구들을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들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올해는 경제 파탄으로 인해 뼈를 깎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인재 이외에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우리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앞에서 참으로 걱정되는것은 우리 사회가 약삭빠른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것만을 챙기고 인정을 나누지 못하는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 주위에는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이제야말로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고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어려울 수록 인정의 맑은 샘물이 널리 흘러 넘치도록 하자. 흑한을 견뎌내고 핀 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인간 행위 중에 가장 값진 것, 곧 사랑의 실천만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저 세한도의 송백처럼 깨끗하게, 사랑의 힘으로 견뎌낸다면 머지 않아 향기로운 매화꽃을 보게 되는 날이 봄과 함께 찾아오리라. (덕)

### 숲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희년



애가(哀歌, Lamentations)

1998년 성령의 해  
“성령의 해를 맞으면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 즉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폐허가 된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읊었다. 이것을 애가(哀歌)라고 한다. 애가는 다섯 편의 시(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레스티나에 남은 소수 유대인들의 쓰라린 심정을 담고 있다.

애가서를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의 저작이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애가서에 나오는 찬상들은 너무 적나라해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애집트로 끌려 갔다.

애가서의 저자는 불타는 성전과 강탈당하는 백성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의 찬상과 자신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찬상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왕국의 멸망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그들의 신앙이었다. 하느님의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구원되리라는 신앙이 왕국의 멸망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느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과 고뇌였다. 애가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답한다. 하느님의 노여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 때문임을 지적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강조한다. 결국 저자는 다음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야훼여, 주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소시오”(5, 21).

1997년 예수 그리스도의 해를 보내고 1998년 성령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서 “제삼천년기”에서 다가오는 2000년 대희년은 성령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강생의 신비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50항).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교회의 영혼입니다. 성령이 아니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게 되면 교회는 그 역동성을 잃게 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이른바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갈 길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순례의 길에서 부딪치는 어떤 난관에도 굴함이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지식으로 그분을 알고 있었을 뿐 가슴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제이고 수도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채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는 우리가 성령을 가슴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도 없이 그저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 무속적인 신앙에 쉽게 기울어졌다면 이 또한 성령의 빛과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교부는 “성령이 아니게 되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해는 성령의 시대를 장엄하게 여는 관문입니다. 성령께 대한 새로운 공부와 인식으로 이 해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령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 대회 환경부  
 7회 연속 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필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흥기(아빨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022

**스포렉스 요육센터**  
 최추관절 생체교정 요육  
 디스크, 좌골신경통, 요통, 두통  
 원 장 임 대 원(요셉)  
 물리치료사  
 영등동 동초등학교앞(우남상가 2층)  
 ☎ (0653) 831-2952(사무실)  
 831-9326(자)

**청솔떡백화점**  
 전통 떡의 모든 것, 주문배달  
 이 종 학(요한)  
 이 승 철(모이세)  
 남부시장 매곡교←전주교 중간  
 ☎ 83-0275, 84-0275

**해나라놀이방**  
 대상 : 0세~취학전 어린이  
 오전반, 종일반, 시간제  
 저소득층 자녀 혜택, 차량운행  
 삼천동 우성주택 2동 116호  
 ☎ 227-5515  
 ☎ 012-1051-2930  
 박 명 선(젼마)



잠간

신학생 현장 생활체험

겨울방학을 맞은 고교 3, 4학년 신학생들은 1997년 12월 22일부터 약 한달동안 노동현장, 농촌, 사회복지시설등을 찾아가 현장생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생활체험이란 사제직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그동안 신학교에서 쌓아온 이론을 현장체험을 통하여 재확인하고 더 넓고 깊이있게 자신들의 성소를 성숙시키며, 봉사하는 사제로서의 자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올해로 칠년째가 됩니다.

현재 현장생활체험에 참가한 신학생들은 12명으로 서울 성바오로수도회에 1명, 성요셉 군산, 이리 노동자의 집 5명, 농민회(남원, 장계) 3명, 동혜원 2명, 성요셉 양로원에 1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8년 1월 21일에 현장생활체험을 마치면 신학생들은 곧바로 이틀간의 세미나를 통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됩니다.

자칫 잊기쉬운 소외된 이웃들과 험한 작업환경을 찾아가 또다른 삶의 경험을 쌓는 이기간이 신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자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공현이란말은 '나타남, 나타내어 보여줌'이란 뜻입니다. 공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지만 섬기려오신 진실한 왕의 모습과 세상의 왕이 줄수 없는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시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상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의 세박사는 온세상 곳곳에서 구원을 찾아오는 모든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세가지 보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상징합니다.



황금은 모든 금속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변치 않으며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으로 나신분께 드리는 예물로 아기예수를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때에 공경의 표시로 피우는 것으로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왕이지만 죽음을 맞으실 '사람'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심이 (1274) 김병오

새해에는 지역감정도 없고 서로 좋아하며..

경제가 안정되어 물가가 싸고

정치를 잘하여 살기좋은 나라가... 애들이

욕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 좋은 나라가 된다

**감사합니다**  
부친 강영철(시리노)을 잃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모든 신자분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남 강명환  
명구 신부, 명화 수녀드림

**우편통신에 의한 신학공부(2년제)**  
대상 : 전신자(연령제한 없음)  
과목 : 성서, 신학전반, 영성  
접수기간 : 98.1.6~98.1.31  
원서청구시 소액환 ₩ 6,330동봉  
☎ (02) 747-8501/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2

교구·제 단체 소식

1. 교구청 시무식 : 1월 5일(월), 오후 9시 30분, 가톨릭센터
2. 사회복지월례미사 : 1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3. 성령의 해 1월 피정 : 1월 6일(화),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강사 - 양평본당 김성배(요셉) 신부
4. 남성 제58차 꾸르실료 : 1월 8일(목)~11일(일), 천호 피정의 집
5. 제20차 선택주말 : 1월 9일(금)~11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신청 - 교구청 교육국 85-0041, 대표 - 85-3637
6. 예비신학생 월례모임 : 1월 11일(일), 오후 1시 30분, 가톨릭센터
7. 기억할 사제 : 1월 9일(금), 김영일(아우구스티노), 5주기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악세사리, 팬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수관(야고보) · 심경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이지문구 유통 상사**  
에버그린 전북대리점  
모나미  
팬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 유통  
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상남(요한)  
이사 : 전현배(다두)  
군산시 월명동 18-23(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동부화재 전주 길대리점**  
자동차, 화재, 해상, 특종,  
저축성보험, 개인연금보험,  
대출상담  
대표 박대길(베르나르도)  
호출 012-1050-0382  
휴대폰 011-6 5 2-0381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회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설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새해, 새희망으로 살아갑시다!

1. 모임 : ① 레지오 꾸리아-교중미사 후  
② 구역반장회-7일(수) 전 10시  
③ 사목회 확대회의-9일(금) 후 7시  
④ 바오로회, 베드로회, 동산회-11일(주일) 교중미사 후
2. 98년도 성령의 해 : ① 성령안에 가정과 본당의 聖化의 해  
② 제단체 활성화의 해
3. 구역성화의 달 : 1월은 제일구역인, 가정방문과 구역미사 있음.
4. 성시간 : 8일(목) 후 7시미사중에 있음.
5. 주일학교 방학 : 1월은 초·중·고생 교리 방학함.
6. 수녀님 피정 : 보니파사 수녀님 피정(6일~14일)
7. 가정성서 모임 : 매주 토요일에 하시기 바람.
8. 제단체 임원 : 올 한해도 열심한 봉사 부탁드림.
9. 제단체 가입 : 단체에 가입하여 좋은 공동체 이루길 바람.
10. 감사 : 본당 성탄예수제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교무금 월납제 : 모든 가정은 교무금 신립과 완납바랍니다.
12. 특별 헌금 : 금주봉헌자-4명, 570,000원

◎ 주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하리이다.

1. 금주 모임 : ① 꾸리아-전 9시  
② 울트레야-낮미사 후
2. 대건회 : 10일(토) 후 7시 30분
3. 차주 모임 : 요셉회, 반석회, 안나회, 자모회-낮미사 후
4. 청소 봉사 : 10일(토)-예언자의 모후Pr.
5. 폐품 정리 : 10일(토)-상지의 옥좌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6. 금주 전례 : 새벽-곽순옥, 낮-홍정의, 저녁-김영중
7. 차주 전례 : 새벽-유희정, 낮-최정순, 저녁-정인자
8. 금년도 교무금 신립과 지난해 미납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신부님 MBW연수 : 4일(일)~23일(금)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무실 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74-9260 수녀원 74-9262 사목회장 유춘옥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수녀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해건

◎ 새해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 오늘 : 빈철푼시오회비 납부일, 교무금 신립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① 요아킴회-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안나회-공식미사 후, 유아실
2. 주간 모임 : ① 사목회-7일(수) 후 8시, 2회의실  
② 제대회-8일(목) 전 10시, 유아실  
③ 빈철푼시오회-8일(목) 후 2시, 유아실  
④ 구역(반)장 모임-9일(금) 후 2시, 지하성당  
⑤ 성모회-10일(토) 전 10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 울트레야-후 7시, 교육관  
\* 차주-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4. 축! 푸르실로 교육 : 8일~11일(일), 천호 피정의 집  
최병춘(알로이시오), 김진순(스테파노) \* 많은 기도 바람.
5. 전입가정 환영 : ① 김병열(미카엘) T. 75-8256, 비사벨A 101-101  
② 하광선(라디슬라오) T. 252-5656, 현대A 102-203  
③ 주미령(수산나) T. 253-3873, 쌍용A 601-408  
④ 서미옥(요안나) T. 252-8739, 7구역 1반
6. 독서 : 금주(새벽)-① 송주창 ② 임경선, 차주-① 박영호 ② 김영숙  
(공식)-① 김석철 ② 오영순, 차주-① 박기영 ② 김경숙
7. 미사 안내 : 금주-하차없으신 모후Pr., 차주-원죄없으신 모후Pr.

◎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우님들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올해는 「본당 선교 계획 실천의 해」입니다.

- ① 예비신자 인도, 냉담교우 회두, 거주불명자 확인 및 회두에 노력 함시다. ②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작은 나눔이 받는이에게는 크 나큰 기쁨을 줍니다.
1. 금주 모임 : 구역봉사자모임-7일(수) 전 10시 30분 2. 성체회 피정 : 성령의 해 1월피정-6일(화) 전 10시, 본당 3. 남성 58차 푸르실로 교육 : 8일~11일, 천호 피정의 집, 권기혁(발렌티노), 송기선(가시미로) \* 많은 기도 바랍니다. 4. 환자 봉성체 : 7일(수) 후 1시 30분
  5. 이웃사랑 기금 : 신입세대(299세대), 신입액(8,088만) 97년 12월 21일 현재 내주신분-김병섭 50만, 허금 3만, 한순복 3만, 최옥태 10만, 한남래 20만, 김홍식 10만, 김홍두 30만, 박순래 2만, 이평순 5만, 이원규 2만, 고석일 10만, 서갑석 1만, 김철희 2만, 정병찬 50만, 김순복 12만, 김복동 1만, 최정숙 6만, 홍옥례 10만, 김숙자 50만, 장순래 1만, 박순애 1만, 최현규 2만, 손순권 50만, 박미순 1천, 이숙희 1천, 김숙영 4만, 김미숙 50만, 이병희 10만, 천숙자 1만, 김이완 10만, 정석모 10만, 박종순 20만, 오태경 10만, 송문채 20만, 국윤호 20만, 장순래 10만, 정창근 30만, 익명 10만 \* 감사합니다.
  6. 97년 미납된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고 98년 교무금을 신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내 친구들'과 '생활성서' 1월호가 나왔습니다.
  8.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봉사 : 거성국민A 구역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호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강호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규환

◎ "주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 하리이다."

◎ 성령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며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됩시다.

1. 모임 : ① 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동산-다음주 후 1시  
③ 제대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밀린 교무금, 신축헌금, 의자대금 정리해 주세요.
3. 98년 교무금 신립바랍니다.
4. 봉성체 : 10일(토) \* 미리 신청바랍니다.
5. 청소 봉사 : 1구역 전체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4,500단 누계-836,525단

1. 금주 모임 : ① 천주의 Cu.-공식미사 후  
② 청년연합회-저녁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9일(금) 10시미사 후
2. 신학생 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3. 98년도 교무금은 사전 신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폐품, 신문, 박스, 공병, 우유팩 수집 안합니다.
5. 차주 : 애령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성체강복, 봉성체, 자모, 성모, 성심회
6. 금주 전례 : 해설-김낙완, 독서-① 권호상 ② 허선영  
봉헌 안내-임낙규, 서쌍옥 부부
7. 차주 전례 : 해설-이건옥, 독서-① 김낙완 ② 김순자  
봉헌 안내-박영근, 최금주 부부

□ 지난해 봉헌금 : 2,012,080원 □ 교무금 : 12,968,000원